달라진 2030세대 2題

1 고용한파가 부른 농촌行… 청년 창업농 경쟁률 3:1

'스마트팜'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농촌, 청년일자리 新블루오션으로

최악의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눈길이 농촌과 농업을 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발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신청해 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에서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1200명을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에 대한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의 올해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인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농대에 따르면 총 18개 학과에서 550명을 뽑은 이번 전형에 총 2054명이 지원했다. 이는 1997년 개교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전체 학과 평균 경쟁률은 3.7대 1이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창업농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처럼 묶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현재 4000ha정도 보급된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ha 규모로 늘려 관련 분야 일자리 52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농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G 푸드 쇼'에서 청년농부들이 직접 기른 농산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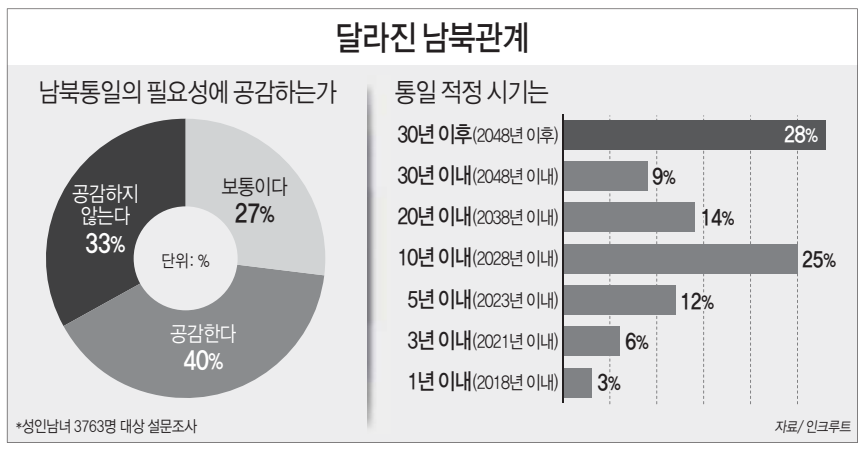
2 2030세대 33%, 통일 필요성 공감 안 해

통일 적정 시기는 2048년 이후

연령별 입장차… 50대 공감 多

성인남녀 10명 중 3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20~30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약했다. 이는 통일 대신 평화를 원하는 2030세대의 생각을 보여준 결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인크루트는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763명을 대상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1%포인트.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7%, '비공감한다'는 33%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보다 6%대 높았다.

성별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성 37%, 남성 27%로 분석됐다. '공감한다'는 여성 33%, 남성 50%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별로도 입장 차가 뚜렷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공감하는 연령대는 50대(57%)였다. 가장 회의적인 연령대는 30대(40%)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꼴로 비공감 의사를 표했다. 20대 역시 36%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통일 적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30년 후인 2048년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 내(25%) ▲20년 내(14%) ▲5년 내(12%)▲ 30년 내(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갤럽이 지난 1월30일~2월1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40%가 "잘된 일", 50%는 ·잘못된 일"로 봤고 1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는 58%가 긍정평가해 부정평가를 앞섰는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20대는 62%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56%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으나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53%, 67%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반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53%가 "잘된 일"이라고 답해 "잘못된 일"(39%)라는 답변을 앞섰다. 갤럽은 "40대는 68%가 '잘된 일'로 평가했으나 20·30대에서는 50% 내외가 긍정적이고 37%가 부정적이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 安 강력 비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창당 공식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던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6일 민주평화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를 추대하며 창당을 공식화했다. 또한 이들은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김경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정인화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통합반대파는 '개혁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35일만에 원내 4당으로 새로운 깃발을 꽂게 됐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당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면서 동시에 호남 중심 정당으로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선언문에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민평당을 창당한다"며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과의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상돈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는 호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멸했다. 호남에서는 안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아가 적개심까지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당명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영어로 하면 'Party of future'인데, 이게 무슨 놈의 말이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공동행보를 이어가며 통합신당인 미래당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안 대표는 민주평화당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유 대표와 함께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한 뒤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당 대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당원의 뜻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은) 착잡하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文 "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가속화"

교두보 삼아 유럽으로의 진출 박차

한-발트3국 경제공동위 출범 환영

우리나라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교두보 삼아 유럽으로의 디지털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은 1991년 양국의 수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에 47세의 나이로 취임한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다.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속하는 에스토니아는 유럽 내에서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통한다.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자정부·사이버 안보·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강국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발트3국 경제공동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에스토니아는 한반도 5분의1 면적에 약 128만명(2015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올해는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독립해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소련으로부터는 1991년에 독립했다. /김승호 기자 bada@